

# 贈領議政行禮曹判書吉昌府院君諱恢

증 영의정 행 예조판서 길창부원군 휘 협

권협(權恢)의 부 남강공(南崗公) 상(常)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는데 효성을 천성으로 타고나 사람을 감동케 하였으므로 선조(宣祖)가 매우 기특하게 여기었다. 1587년(선조 20년) 80세가 되자 노인직으로 가산대부(嘉善大夫)의 직직(職秩)을 더하고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었으며 부조 3대에 추은이 내려졌다. 이 사실은 영상(領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묘지(墓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충정공(忠貞公) 협(恢)은 명종 8년 한성부 주동(鑄洞)에서 남강공 상(常)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이관(李瑄)에게서 수학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선조 10년 알성시(謁聖試)을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통진현감을 지내고 내직으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직임을 맡고 전한(典翰)에 보임되었는데 지제교를 겸대하였다. 왜인이 일어 한성을 사수해야 한다고 진력하니 임금이 패검(佩劍)을 내렸다. 관서의 운량어사(運糧御使)가 되어 3도의 군량을 모집하였으며 이어 삼남도체찰사부(三南都體察使府)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군무를 전담하였다.

정유재란에 원병을 청하러 명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지리와 군정을 질문하니 상세히 답변하니 중국 제신(諸臣)들이 현재(賢才)라 칭찬하고 발병(發兵)과 군량을 성사시켰다. 귀국하여 호조참의가 되고 곧 황해관찰사, 나주목사를 역임하고 정유재란 원병을 청한 공으로 선무공신에 녹훈되고 길창군(吉昌君)에 봉호되었다. 공은 호조참판,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전라도관찰사, 전주부윤이 되고 선조 40년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도총관(都總管)을 지냈다. 광해군 8년에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병이 들어 광해군 10년 66세에 졸하니 대광보국공숙대부 의정부 영의정(領議政 領議政) 겸 평경연(領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사(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으로 추증되고 충정(忠貞)의 시호가 내렸다. 구로구 공동에 합부하였으며 조정(趙綱)이 신도비문을 짓고 미수 허목(許穆)이 글을 썼다.

배위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안정 나(安定 羅)씨는 고려 어부(紙侯) 나직경(羅直卿)의 후손이자 어모장군(禦侮將軍) 나운겸(羅云傑)의 여식으로 일찍부터 고운 의모로 20세에 시집와서 문안에 들어온 이후 권상(權常)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친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힘쓰고 친척에게도 이부어 행하니 모두 일컬어 효부라고 하였는데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다. 아들 5명을 낳았다.

여기에 충정공과 임난사에 대한 소사를 기록한다.

협은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장대하고 모습이 풍만하고 총명이 뛰어나고 관례(冠禮)를 치르자마자 문장에 주력하여 24세 때 정시(庭試)에 장원하고 1577년(선조 10년) 알성문과(謁聖文科) 을과(乙科)에 합

격하였다. 이에 승문원(承文院) 춘추관(春秋館)을 거쳐 승정원 주서(承政院 注書)를 지냈다.

예전에는 예문춘추관이러니 하다 태종 때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뉘어 이곳에서 사관들이 왕조실록 작성의 자료가 되는 사기의 원고를 꾸렸다. 이를 한림(翰林) 또는 사신이라고 하였는데 협은 한림이 되었다. 그는 한림이 되자 명종실록 작성에 참여하여 실록의 역사가 되는 편년체로 꾸렸는데 한림 또는 사신은 비록 낮은 벼슬이지만 앞으로 출세가 보장되는 수재들의 등용 문이었다. 명종실록은 1545년 7월부터 1567년까지 22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은 임금에게 그의 재주를 인정받아 통진 현감, 병, 형, 예조 낭관을 거쳐 동벽(東壁) 벼슬이치가 출근하여 모여 있을 때 좌석의 동쪽에 앉은 벼슬로 의정부의 좌참찬 통례원 승정원의 우승지 좌부승지 등이 이에 해당)에 이르는 동안 항상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권협은 1586년(선조 19년) 8월 사헌부 지평(持平)정5품에서 성균관 직강(直講)정5품으로 직을 옮겼다.

1588년 권협이 수찬으로 있을 때 평양 근방으로부터 역질이 번지고 있었다.

역질은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와 호남일대까지 번졌다. 산천에 제사를 지내라는 선조의 명을 받고 출정의 행장을 갖추고 일행과 함께 평양을 향해 달렸다. 권협의 일행이 주아로 달려 황주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강 건너 들관과 산비탈 서너 군데에서 불길이 솟고 있었다. 맥없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 길을 재촉하여 떠났다.

권협이 함경도 땅에 들어서 감사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제단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부사 군수가 동석했고 그밖에 인근 고을의 많은 지방관들과 호호들이 참석하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일기가 살을 에는 설풍(雪風)으로 돌변하고 의원들이 역질에 대한 매질의 관계를 밝히면서 팔도 천지가 얼어붙은 절기도 도와 이극고 역질은 기세가 꺾였다. 도성 안에 투입됐던 못된 병은 왕자 의안군의 목숨과 많은 인명을 빼앗아 갔다. 함경도에 치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과된 권협이 귀환하였다.

권협은 1591년(선조 24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전해 장령(掌令)으로 임명되었다. 장령은 사헌부의 종4품의 관직이다. 그때 나라의 정세는 갈수록 당파싸움에 시달려 국정을 논할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그 직에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권협은 어느 직에 있던 흔들림 없이 누구에게도 염매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행동하니 그의 성품은 아는 사람은 사람됨을 흠모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직무에 충실했으니 그의 천성이 얼마나 강직하고 또 선비 정신이 투철했는가를 알 것 같다.

권협은 집안은 고려시대 구봉군(仇峯君) 국재공 보(樞)의 후손으로 이름난 집안이

지만 아버지 권상(權常)은 효(孝)와 문화으로 빛난 인물로 주역에 능했다. 그래서 아들 협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내 아들 협(恢)은 성질이 믿음직스럽고 조용한 성격으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선량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강한 추진력과 용기가 있어 한번 일을 시작하면 남들에게 뒤지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일을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구설수가 생기기 쉬우니 대인관계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이 필요하겠다. 이것만 주의하면 재주가 뛰어나서 잠자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할 것이다” 하였다.

1592년(임진년:선조 25년)에 왜구침입의 급보가 당도한 것은 예적이 김해를 함락시킨 4월17일 경상좌수사 김홍의 장계에 의해서였다.

도승지 이항복이 침입에 있는 선조에게 장계를 보고하니 대신들을 불러들이라 하였다. 권협이 급보를 받고 궁으로 들어왔다. 이미 어전에는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유성룡, 우의정 이양원, 도승지 이항복, 비변사 당상들이 어전에 북북하여 있었다. 왜적은 부산포를 함락시키고 북상 중에 있다는 보고였다. 새벽안개가 자욱한 부산포 항구는 일본군 15만이 조용히 접근하였다. 조선군에 비해 실로 엄청난 인원이었다. 4월 13일 새벽안개가 자욱한 부산포 항구를 적선이 바다를 건너 들어왔다. 적은 동래에 당도하자 동래부사 송상현은 공격명령을 내려 전투가 시작되었으나 물밑듯이 밀려오는 왜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왜장의 칼날이 장렬히 전사했다. 동래부성이 함락되자 왜군은 승승장구 북상하였다. 4월24일 일일을 순번사로 삼아 정예병을 이끌고 상주에 내려가 적을 막도록 하였으나 상주에서 패하고 충주에서 신임이 패하니 4월18일부터 매일 패전 보고가 속속 들어왔다. 조선군대는 물밑듯이 밀려드는 왜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도성(都城)을 떠나려고 여전회의가 있었다. 민심은 벌써 조정을 떠나 있었다. 도성이 흉흉하였다. 이를 생각하며 권협은 어전에서 이르기를 “청컨대 서울을 고수하시어, 파전은 아니 되웁니다. 도성의 백성들은 모두 빨벌이 흩어졌으므로 도성을 고수하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되웁니다. 민심이 솔렁이는 도성을 지켜 주시오소서”

그말소리가 지나치게 크고 또 선조의 눈앞에 까지 이르렀기에 좌의정 유성룡이 권협에게 꾸짖었다. “아무리 위급하고 혼란할 때라 하더라도 군신간의 예가 이리할 수 없으니 당장 물러나서 아뢰도록 하라” 하고 큰 소리로 일렀다. 이에 권협은 오히려 급함이 없이 유성룡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좌상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권협은 잇달아 부르짖었다. 그러자 유성룡은 권협이 의기 찬 물음에는 이렇듯 하지 않고 선조에게 아뢰기를 “권협이 말이 충성스러우나 단지 사제가 나가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조판서 권협묘소



◇권협묘비

거두소서. 한양을 떠나서는 아니됩니다. 전하께서 한양을 떠나는 날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권협은 선조에게 서울 수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선조를 비롯한 대소 신료들은 권협의 말에 동조하는 기색이 보였으나 사제가 이미 기울어져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의 충정은 알겠다” 선조는 짧게 대답했다. 선조는 그 의기를 칭찬하고 감탄하여 차고 있던 소매를 권협에게 하사하였다. 이때 이미 그렇게도 일에 담기가 어려웠던 문진이 결정된 셈이다.

밤 이경(二更)에 선조 일행은 승례문(崇禮門)을 지나자 급히 달려온 권협이 말갈레를 지고 선조 일행을 수행하였다. 권협은 도성을 떠나 어가를 모시고 개성 행재소에 도착하였는데 양사가 제일 먼저 파전을 주강한 영의정 이산해를 논하여 멀리 귀양 보내거나 벼슬을 삭탈 관직하기를 청했다. 선조는 육승지와 어가를 호종한 신하들을 부청(符廳)에서 인견하였는데 모두 의견들이 파전의 실수를 공격하고 그 계획이 이산해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분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권협은 그들을 박살하지는 논의도 나왔다. 권협은 비롯 시간 이과, 장령 정희년 이유중, 지평 이경기, 헌납 이정신 등은 모두 이산해의 중벌을 청했고 대사간 이현국은 “이산해가 젊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의 실력도 뛰어났는데 국사를 맡은지 오래인데 오점을 남겼으니 중론을 따르심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하면서 권협이 서울수수를 주장할 때도 파전을 강력히 주장하여 어의를 흐리게 하여 나라를 이 지경으로 이끌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선조는 아무 대꾸도 없이 갈 곳을 재촉하였다. 선조 일행은 다시 개성을 떠나 평양 행재소에 도착하였다. 권협은 행재소에서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바로 서울을 떠날 때 생사조차 몰랐던 셋째 형님 권희(權禧)가 그의 아들 권익중, 권익중과 함께 어려움을 무릅쓰고 종묘의 신주들을 받들고 들어오자 반가워 어찌 할 줄 몰랐다.

(후손 권진택)

(다음호에 계속)

# 中·西南部地域 宗親會長協議會

중·서남부 지역 종친회장협의회



◇대전시 탄방동 도산서원에서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중, 남서부지역의회를 개최하였다.



안동권씨 지역종친회장협의회 (2014년 2월 20일, 대전 민통공 묘역)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길상)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에 중서남부지역협의회를 대전광역시서구 탄방동소재 도산서원 도산서관 회의실에서지역종친회장 12분과 본협의회 權錫俊副會長 朱翁公宗中 權善萬 宗會長 權嘉結 大田宗親會 副會長 權容基 大田靑壯年會長을 비롯한 내빈12분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개최전에 주과포를 준비하여 朱翁公宗中에 헌작하고 참석한 전종친들이 참석하고 탄옹공 재실과 도산서원 등 관람하고 회의에 앞서 권길상회장의회장은 내빈소개와 종친회장을 소개하였다.

회의는 권영강 간사장(수원종친회장)의 사회로 성원보고와 국민의례와 시조님께 망배 상응례를 마쳤으며 회의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권길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靑馬의 해 甲午년을 맞아 올 한해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청마의 운기를 받아 전국 지역종친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의원 권경달총재님 新年辭 話頭는 權門萬歲榮이었습니다. 우리 地域宗親會長團은 地域宗親會 活性化와 和合합니다.” 라고 하면서 중서부지역회의는 지난해 개최하여 함에도 시조님의 추향제 및 각 문중마다 묘사 등 많은 사정으로 해를 넘겨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로 인사와 더불어 이날 이렇게 멀리 광주 순천시 참석하여 이곳 도산서원 도산서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한다고 하고 우리 지역협의회목적은 항상 대의원이 지향하는 종사발전에 중시하여 각 지역종친회 상호교류와 종친 간 친목화합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다음달 3월19일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총회에 많은 지역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종친회장협의회는 지난해 3월 서울 용두동 모식당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회의 하기로 함

에 따라 지난해 6월20일 경북지역 종친회장을 중심으로 안동시서후면 능골 시조님묘소 앞 추원루에서 대의원 권계동 부총재 권경석 사무총장 권순갑 사무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로은 가운데 20여 지역회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월16일은 경남을 중심으로 남부지역 협의회를 경남 진주시 축석무암 대일부폐식당에서 대의원권영한 부총재 권경석 사무총장 본협의회 권호준(대전종친회장)부회장과 권민오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의 지역회장이모여 뜻 깊게 회의를 잘 마친바 있다.

뒤이어 탄옹공 종중 권선만 회장의 축사와 권호준 본회 부회장의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감사말씀과 권용기 대전청장전회장의 오는 4월 26일 이곳 대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하는 말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분은 광주 권총화회장 순천 권준표회장 서울마포 권승구회장(협의회감사) 권영주금천회장 권영갑회장(수원오산) 권선만 탄옹공총회장 대전종친회 권호준회장. 권희철부회장. 권동원총무. 권용기 청장년회장 권선상체육대회 준비위원장 권영수 제천회장과 권순덕총무 권오섭 진천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육만예산회장 권준원연무회장 권길상 부산종친회회장 부산 권임호부회장 권용섭사무국장님이 참석하였다.

이어 토의사항에 들어가서 종사발전과 지역협의회 발전에 많은 참고가 되는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권영수 제천종친회장의 망배의 절차와 상응례 및 예절에 관한 좋은 말이 많은 종친님께 교환과 참고가 되었다.

끝으로 오늘 행사는 대전종친회 권호준회장의 재반 준비와 부산종친회 권임호 부회장 권용섭사무국장의 사전 준비로 화기로운 분위기 가운데 회의를 마쳤다.

(권영강 간사장/사진·권오진)

# 부정공파 안동 돈목회 척사대회

부정공파 안동돈목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 안동 농민후계자식당에서 회원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척사대회를 하고, 이어 추천에 위에서 권석원씨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장단원은 다음과 같다.

- ▲공론: 권영역, 순형▲ 회장: 권석원▲ 부회장: 권영우, 인석, 병선, 민정, 순회, 오향, 오석, 기원, 순탁, 용선, 석기, 기태▲ 감사: 권오인 ▲총무: 권기덕 (권혁세 기자)



◇부정공파 안동돈목회가 안동농민후계자 식당에서 열린 척사대회에서 권석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북야공파부녀회 및 청·장년회 척사대회



◇북야공파부녀회, 청장년회 척사대회 모습

북야공파(僕射公派) 부녀회(회장 권연화)와 청·장년회(회장 권오익) 회원 등 60여 명은 2월 17일 오전 11시 안동시 대화동 장자방에 모여 척사대회(擲擧大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현성, 권오수 고문, 권계동 파종회장, 권오구 부회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오익 청·장년회장, 권오장 청·장년회 직전회장, 권오의 총무부장이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특히 권계동 파종회장과 권오익 청·장년회장은 금일봉을 즉석에서 부녀회에 각각 전달하여 박수를 받았다.

권계동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문단, 회장단 여러분이 평소 파종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척사대회를 통하여 더욱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태찌개를 곁들인 점심 식사와 떡, 과일,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으로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권영세 안동시장의 대회장에 도착, 부녀회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척사대회는 청·홍 두팀으로 나누어 20명이 한 팀이 되어 오랫동안 윗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각자 선물을 받고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진)

# 全國地城宗親會長協議會總會開催 案内

全國地城安親會長 協議會總會 를 아래와 같이 開催하오니 參席해주시길 敬望합니다.

## 아 래

日 時: 2014. 03. 19. 15시  
場 所: 부산역 광장에서 함께 만남  
日 程: 19일 15시 부산역 광장에서 만나  
다음날 20일 15시 부산역에서 해산  
(행사 세부일정 미정)

참 고: 시간상 부득이한 분은 시간 조정됩니다.  
세부사항: 추후 우편물로 상세히 통보

2014. 02. 25

全國地城宗親會長協議會 會長 權吉相 謹拜